Weekly 2022년 제3호 | 2022.3.17.(목)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금주의 GVC Insight

최신 GVC 해외 이슈

【코로나 봉쇄, 중국】 중국내 코로나 확산으로 IT제품의 세계적인 허브 도시인 선전(深圳) 봉쇄

【경제·무역, 미국】 美 대통령, 러시아의 '영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 중단 추진 공표

【염화칼륨·비료, EU·벨라루스】 EU, 對벨라루스 제재로 염화칼륨 공급부족·가격인상 우려

【수출통제, 러시아】 러시아가 발표한 수출 금지(제한) 품목 500개 분석 (산업통상자원부)

【팜유·해바라기씨유, 인니·러시아·우크라】 팜유, 해바라기씨유 등 글로벌 식용유 공급 부족 우려

【경제지표, 중국】 2022년 1~2월 중국 경제지표 예상 외 선방

GVC 뉴스 더하기

① 러시아의 석유·가스 수출 중단 4가지 시나리오는?
② EU, 에너지 등 분야 러시아 의존도 완화를 위한 비공식 정상회담 개최
③ 원유·가스·석탄의 글로벌 생산·수출·소비 통계

GVC 기초상식

글로벌가치사슬(GVC)과 부가가치(VA)

GVC 돋보기

① 미국 공급망 행정명령 1주년 보고서
② 리쇼어링(Reshoring) 동향 및 시사점

GVC 전문가

김양희(외교안보연구소) - '신뢰가치사슬(TVC)'

GVC 소식통

① 러시아-우크라 사태 관련 기업 지원 문의처 안내
② 중국의 코로나 봉쇄에 따른 기업의 공급망 애로 접수 창구 운영
③ (공급망 관련 행사 안내) WTO 공급망 포럼, 배터리 공급망 세미나·상담회

더 찾아보기

'석유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저자: 최지웅) 책 소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최신 GVC 해외 이슈

● **【코로나 봉쇄, 중국】 중국내 코로나 확산으로 IT제품의 세계적인 허브 도시인 선전(深圳) 봉쇄** (3.14~20)

- 중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인구 1,700만의 IT제품의 세계적인 허브 도시인 선전(Shenzhen)市가 도시 봉쇄에 들어갔으며, 둥관·창춘·지린·상하이·베이징 등 중국내 주요 지역도 방역 수위를 높이고 있음
-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선전市는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주민들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리고 도시 전체적으로 버스와 지하철 운행도 중단시킴
- 세계 최대 전자기기 위탁 제조업체인 폭스콘의 선전 공장도 애플의 아이폰 생산을 잠정 중단했으며, 선전에는 폭스콘 외에도 화웨이, 텐센트, ZTE, BYD, DJI 등의 기업이 소재하고 있음. 파이낸셜타임스는 '선전 봉쇄가 미국·유럽에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던 전 세계 공급망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으며, 모건스탠리는 '중국 당국이 중국판 실리콘밸리인 선전을 전면 봉쇄하면서 경기 회복보다는 코로나19 통제에 중점을 두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했다'고 분석함

출처 : 로이터, 파이낸셜타임스, 매일경제, 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 등 종합

● **【경제·무역, 미국】 바이든 대통령, 러시아의 '영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 중단 추진 공표** (3.11)

- 바이든 대통령은 3.11일 대국민 담화에서 미국은 주요 동맹국과 협력해 '러시아 PNTR 지위 중단'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 PNTR은 미국이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맺은 외국에 부여하는 법적 지위로서 국제적으로 통칭하는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대우와 동일
- 미국과 함께 NATO, G-7,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EU 등도 국가별 러시아 최혜국 대우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공개
- PNTR 지위 박탈로 러시아는 WTO 회원국 일반에 허용하는 관세 혜택과 비관세 장벽 등 비차별적 대우에서 제외, 미국의 주요 러시아 수입품인 캐비어(15%→30%), 합판(0%→30%) 등 관세 급등 전망
- 무역 정책 권한을 가진 美 의회가 러시아 PNTR 중단에 초당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바, 조속한 해당 법안 처리 무난 전망 (금주 하원 표결 예상)

출처: KOTRA 워싱턴무역관

● **【염화칼륨·비료, EU·벨라루스】 EU, 對벨라루스 제재로 염화칼륨 공급부족·가격인상 우려**

- 3.2일 EU는 러시아의 침공을 지원한 벨라루스에 대한 신규제재를 승인했는 바, 목재, 철강에 이어 염화칼륨의 수입을 전면 금지시킴. 동 조치는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
  - '21년 6월 EU는 벨라루스내 부정선거 의혹, 반체제 언론인 탄압 등에 대한 제재로 벨라루스산 인산염, 질소 혼합물 수입금지 및 염화칼륨 수입량을 20%로 제한한 바 있음
- EU의 염화칼륨 생산 비중은 전 세계 6% 수준, 역내 염화칼륨 수요 85%를 수입에 의존
  - EU의 벨라루스산 염화칼륨 수입 비중 27%('18~'20년 3년간 평균)
- 유럽 최대 비료제조사 Yara, 폴란드 Grupa Azoty 등은 2021년 제재에 대비, 염화칼륨의 공급망 다변화(캐나다·독일 등)에 노력해왔으나, 금번 신규 제재로 에너지·원자재 공급이 어려워져 비료·식품 가격 상승이 예측되며, 농업·식품산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됨

출처 : KOTRA 브뤼셀무역관, Euractiv

● **【수출통제, 러시아】 러시아가 발표한 수출 금지(제한) 품목 500개 분석** (3.12~16,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3.9일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500개 품목의 상세리스트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 (3.12, 3.16 보도참고자료)

- 수출금지 : 러 연방에서 EAEU, 압하지야, 남오세티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로 219개 품목의 수출을 금지
  - 대상국가 : EAEU(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4國), 압하지야 및 남오세티아(친러시아, 미승인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적용 (한국 포함)

- 수출제한 : 러 연방에서 EAEU, 압하지야, 남오세티아로의 281개 품목의 수출을 제한 (한국 미포함)
  - 수출 금지 219개 품목에 물리·화학 분석용 기기, 광학 현미경, 사진기, 공구 등 56개 품목 추가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러시아의 수출금지 조치는 러시아에서 이전에 수입한 제품·장비에 대한 재반출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단기적으로 러시아 현지 및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 (수출제한 품목 관련, 러시아 현지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산업통상자원부는 3.16(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상기 500개 품목 리스트의 국문 번역본을 배포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3.12, 3.16)

● **[팜유·해바라기씨유, 인니·러시아·우크라] 팜유, 해바라기씨유 등 글로벌 식용유 공급 부족 우려**

- 인도네시아 정부는 3월 10일부터 팜유 수출업자의 내수 공급 의무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10%p 높이는 수출 규제 강화를 실시
  - 팜유는 식용으로도 사용되며, 화장품, 과자, 초콜릿 등의 원료로도 쓰임. 인도네시아가 최대 수출국

- 러시아/우크라이나는 해바라기씨유의 주 생산국으로 전 세계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바, 유럽 식물성기름협회에 따르면 EU의 해바라기씨유 재고 물량은 4~6주치에 불과하여 조만간 수급 어려움 예상
  - 해바라기씨유는 4대 식물성 기름 중 하나로 식품 생산에 필수적이며 바이오디젤 등에서도 활용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바라기씨유 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스페인은 구매량을 1인당 5리터로 제한

출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언론기사 종합

● **【경제지표, 중국】 2022년 1~2월 중국 경제지표 예상 외 선방** (3.15, 중국 국가통계국)

- (산업생산) 제조업 7.3%↑, 전력/에너지 등 6.8%↑ → 비록 업스트림 부문 가격 상승이 제조업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하이테크제품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 중

- (소매판매) 사회소비품 소매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한 7.4조 위안 → 외식업 매출 증가율이 8.9% 상승으로 회복되었으며, 악세사리(19.5%), 가전(12.7%), 사무용품(11.1%) 등 판매가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소비회복세를 견인

- (투자) 전년동기대비 12.2% 증가한 5.1조 위안 → 부동산 투자(3.7%↑) 부진이 지속되는 데 반해 제조업 투자(20.9%↑) 증가세가 견조하고, 인프라 투자(8.1%↑) 또한 뚜렷한 개선세를 보임

- 이번 지표 호전에는 중국이 지난해 12월부터 내놓기 시작한 경기 부양책이 일정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지만, 코로나19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갈등 등으로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며, 1~2월 지표에는 이러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임

출처 : Kotra China Daily Issue(3.15), 연합뉴스, 한국경제 등 종합

GVC 뉴스 더하기 ① : 러시아의 석유·가스 수출 중단 4가지 시나리오는?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 점유율이 높기에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함. 향후 **러시아산 석유·가스 수출 중단의 가능성**이 있는지, 최근 **일본 닛케이비즈니스가 소개한 에너지 산업 전문가 포스트석유전략연구소 오바 노리아키 대표의 분석**을 토대로 그 영향을 검토해보고자 함

● 러시아의 석유·가스 수출 중단 4가지 시나리오는?

주요 시나리오	특이사항 등 세부 내용
1. 러시아 은행의 SWIFT 배제 조치로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경우	• 석유·가스는 러시아의 무역수출액과 정부 세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기에, **제재 효과가 유효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심리적 효과로 가격만 상승**하면, **오히려 러시아 정부의 세입을 증가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
2. 주요 국가의 자발적인 수입 자제	• **국제 여론에 협조, 국가 차원의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는 국가 존재 가능 ※ 최근 미국과 캐나다는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 금지를 발표한 바 있음
3. 서방 경제제재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러시아의 특정국 대상 수출 금지	• **러시아 스스로 수출을 통한 수입을 포기하는 방향**이며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4. 전쟁 격화로 공급 지장	• 전시 상황에 따라 물리적 인프라 파괴 시

● 수출 중단 시, 세계 에너지 시장에의 영향 및 러시아의 대응책

- **(글로벌 시장 공급 부족)** 심각한 공급 부족 예상. 지금부터 타 지역 투자를 늘리더라도 긴 시간이 걸리는 자원 개발 특성 상, **상당한 기간의 공급 부족이 필연**
- **(러시아의 우회 수출 도모 가능성)**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의 석유 우회 수출 상황을 참고 가능. 이란과 유사하게 러시아도 석유·LNG 탱커 산지를 위장하여 수출하고, 터키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공급하면 **자국의 이익을 위한 수출 문제 일부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 존재
  - **(이란의 우회 수출 방식)** 오만, 말레이시아 등으로 산지를 위장하여 중국, 베네수엘라 등으로 탱커를 수출 중으로, 더욱이 최근 중국은 공식적으로 이란으로부터의 수입을 인정한 바 있음
- **(미국의 러시아 에너지 산업 표적 제재)** 미 정부는 3.2일 석유·가스 굴착 및 생산용 기기의 수출 규제를 추가로 발표. 이는 냉전 시대에 미국이 소련에 부과했던 제재와 유사하나, 이후 러시아가 육성해 온 중국산 기기의 수입으로 상당 부분 대응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다수 → **큰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 **(美 레이건 정권의 소련 제재)** 對소련 석유·가스 굴착/생산 기기 수출을 규제하고 사우디와 원유 저가 전략을 공모 → 동 제재로 소련 석유 산업이 와해되었고, 소련 붕괴의 요인이 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

● 에너지 외 산업에의 러시아 영향력

- 러시아의 수출 제품 중 에너지 이외에는 철강·금속의 비중이 약 15%로 크고, 이어 자동차 산업이 약 8%를 차지하는 상황이며, 아래 품목들의 세계 생산 및 수출 점유율이 높음

금속자원	곡물	비료
• 니켈 (전지 전극 재료, 세계 생산점유율 9.2%, 점유 순위 3위) • 코발트 (전지 전극 재료, 4.5%, 2위) • 팔라듐 (자동차 배기가스 처리용 촉매, 37%, 2위) • 백금 (자동차 배기가스 처리용 촉매, 11%, 2위) • 공업용 다이아몬드 (33%, 1위) / 금 (10%, 3위)	• 밀 (2017~2021년 세계수출 20%, 1위) • 해바라기씨유 (세계수출 약 25%, 2위)	• 질소비료 (세계 생산점유율 11%, 2위) • 칼륨비료 (20%, 2위)

자료 : 미국지질조사소 USGS 2021년 추계치 등 기반 닛케이비즈니스 및 farmdoc daily

● 향후 전망

- 對러시아 경제활동 제재 및 러시아의 對세계 보복조치가 지속되면 **세계경제 전체에 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바,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비용 상승형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공급망 병목 현상**이 우려
- 이러한 영향으로 **글로벌 수요 침체**가 나타나면 **에너지 가격은 오히려 하락한다는 시나리오까지도 고려 가능**

작성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GVC 뉴스 더하기 ② : EU, 에너지 등 분야 러시아 의존도 완화를 위한 비공식 정상회담 개최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 EU 등은 지속적으로 러시아 경제 제재를 시행하고 있음. 한편, **EU는 천연가스·석유 등 에너지 부문의 러시아 의존도가 높아서 미국에 비해 러시아 제재에 신중한 입장임.**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EU는 3.10~11 양일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비공식 긴급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러시아 제재에 힘을 실어가고 있음**

● EU의 에너지 분야 러시아 의존도는?

- **(수입)** EU는 난방·전기·산업용 에너지 90%를 천연가스로 충당, 이 중 약 40%를 러시아에서 수입
  - EU의 對러 에너지 의존도('19년) : 석탄(46.7%), 천연가스(41%), 원유(26.9%)
- **(국별의존도)** 천연가스의 경우, 핀란드(94%), 라트비아(93%)의 의존도가 높고, 프랑스(24%), 네덜란드(11%)는 상대적으로 낮음('20년 기준)
- **(영향)** 산업·농어업·기계·서비스·가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천연가스는 제품 생산 초기 과정에서의 간접적 소비도 많아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역내 영향이 큼
  - 유럽중앙은행(ECB), 천연가스 공급부족으로 생산 10% 감소 시, 유로존 내 총부가가치 규모 -0.7% 전망('22.1월)
  - 천연가스로부터의 전력·증기·냉방 사용이 큰 회원국의 경우, 손실 규모는 더욱 클 것 (슬로바키아 -1.6%)
- **(미국과의 비교)** 미국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EU 대비 낮으며, 미국의 러시아산 유류 수입은 전체 에너지 수입량의 약 3%에 불과

● EU,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비공식 긴급 정상회의 개최 (3.10~11)

- 러시아의 부당한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하며, EU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신속한 추가 제재 조치를 부과할 것임을 강조
-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 경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우크라이나의 EU가입 신청에 대해 즉시 대응, 관련 조약에 따라 집행위에 의견제출 요청
-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력강화, 에너지 의존도 감축, 강력한 경제 기반 구축 방안에 대해 협의

● 주요 안건별 핵심 논의사항

(1) 對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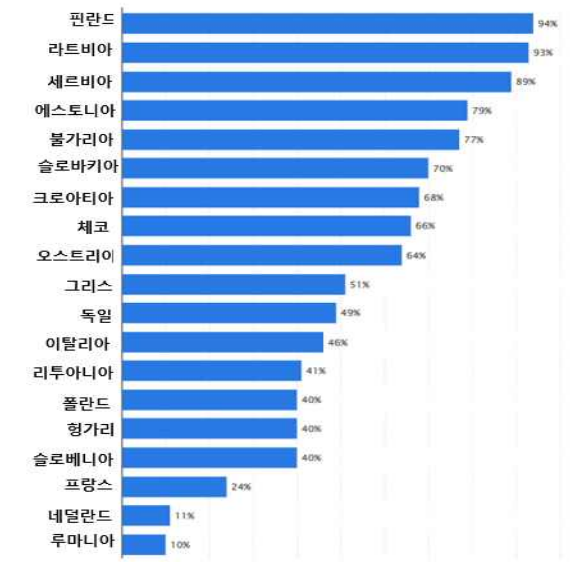
-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對러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 의존도 단계적 감축 합의**
  - **회원국별 의존도 및 입장이 상이**한 바, **전면 수입 중단이 아닌 단계적 감축 방향으로 협의**

구분	내용
찬성	• **폴란드·슬로바키아**는 전면수입 중단에 준비되어 있다며 전적으로 동의하는 반면, **프랑스·스페인**은 중단을 찬성하면서도 러시아와의 대화채널을 열고 협력방안을 모색하자는 입장
반대	• **독일, 헝가리, 불가리아, 핀란드** 등 對러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전면 수입 중단을 반대 * 헝가리, '전면 수입중단에 따른 에너지상승 비용 부담할 수 없어'
유보	• **이탈리아, 포르투갈, 체코, 그리스, 슬로베니아, 루마니아**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

자료 : Euractiv

- △회원국별 상황에 맞춘 화석연료 의존도 감축, △공급 및 에너지원 다각화(LNG 사용, 바이오가스 개발 등), △수소·재생에너지 개발강화, △가스 및 전기 네트워크 연결 강화, △공급비상계획수립,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순환경제 촉진 논의

유럽국의 對러 천연가스 의존도('20년)



자료 : statistica

천연가스 공급부족에 따른 부가가치 영향(관련생산 -10%)



자료 : ECB

(2) 더욱 강력한 경제기반 구축

- **(전략 분야)** △핵심원자재(CRM), △반도체, △보건, △디지털, △식품을 핵심 전략 분야로 설정하고 유럽 주권 강화 및 그린·디지털 전환 추진
- **(금융·투자)** 투자 프로젝트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친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통합적이고 경쟁력 있는 EU 금융시장 구축 필요성을 강조
- **(안보 강화)** 국방예산 확대, 혁신·안보기술 투자(사이버보안, 우주기반), 전략적 인프라 보호 등

● 후속조치 및 전망

- **(추가제재)** 회담 직후 EU 집행위원장은 **對러시아 4차 제재조치**를 발표, **WTO 최혜국대우(MFN) 지위 박탈, 철강수입금지, 에너지부분 신규 투자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향후 관련 동향 주시 필요
  - EU는 MFN 기반, 평균 5.1% 관세 부과 중('19년)이었으나 최혜국대우 철회로 對러시아 고율 관세 부과, 쿼터 설정 가능
  - 러시아의 수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41%(1위)로, 고율관세부과 등에 따른 수출 감소 및 경제적 타격 불가피

☞ **EU집행위 발표, 對러시아 4차 제재 조치 (3.11)**

① WTO 최혜국 대우 박탈 및 IMF, WB 등 국제금융기구에서의 회원자격 정지
② 푸틴 측근 및 가족들에 대한 압력 지속, 다음주 G7 재무, 법무, 내무장관 회의에서 대상자 조율 예정
③ 러시아 및 주요인사의 제재를 우회한 암호화 자산 사용 동결
④ 유럽산 명품의 러시아 수출금지, 러시아 고위층에 압력
⑤ 철강부분 주요 품목 수입금지, 수십억 달러규모의 수출수입을 박탈
⑥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부분에의 신규 투자 금지 (에너지 탐사와 생산을 위해 필요한 모든 투자, 기술이전, 금융서비스 등 포괄금지)

- **(에너지 의존감축 박차)** 對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축 위해 집행위가 발표(3.8)한 **'에너지 전략(REPowerEU))' 세부 실행계획 5월말까지 제출** 촉구, **향후 집행위의 세부 실행계획 모니터링** 전망

☞ **EU집행위 발표, 對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탈피 전략(REPowerEU) (3.8)**

▸**(공급 다각화)** 수입선 다변화 및 역내 가스 비축량 확대
- 미국, 카타르 등 기타 역외국으로부터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 연간 적정 비축량 법제화('22.4월 발표 예정) 및 매년 10월 가스비축량 90% 확보

▸**(재생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관련 행정·승인 절차 간소화
- 건물에너지효율화, '30년까지 바이오가스 350CBM 생산, 수소인프라 확대, 공급선 다변화 등

작성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GVC 뉴스 더하기 ③ : 원유·가스·석탄의 글로벌 생산·수출·소비 통계('20)

1. 원유

● 생산

(단위: 백만톤)

순위	국가명	생산량	비중
1	미국	713	17.1
2	러시아	524	12.6
3	사우디	520	12.5
4	캐나다	252	6.1
5	이라크	202	4.9
6	중국	195	4.7
7	UAE	166	4.0
8	브라질	159	3.8
9	이란	143	3.4
10	쿠웨이트	130	3.1

수출

(단위: 백만톤)

순위	국가명	수출량	비중
1	사우디	349	16.6
2	러시아	260	12.3
3	캐나다	189	9.0
4	이라크	179	8.5
5	미국	155	7.4
6	UAE	143	6.8
7	쿠웨이트	97	4.6
8	멕시코	57	2.7
9	호주	9	0.4
10	싱가포르	2	0.1

소비

(단위: 백만톤)

순위	국가명	소비량	비중
1	미국	740	18.5
2	중국	669	16.7
3	인도	213	5.3
4	사우디	150	3.7
5	일본	149	3.7
6	러시아	146	3.7
7	한국	111	2.8
8	브라질	107	2.7
9	캐나다	98	2.4
10	독일	96	2.4

2. 천연가스

● 생산

(단위: 백만톤)

순위	국가명	생산량	비중
1	미국	679	23.7
2	러시아	474	16.6
3	이란	186	6.5
4	중국	144	5.0
5	카타르	127	4.4
6	캐나다	123	4.3
7	호주	106	3.7
8	사우디	83	2.9
9	노르웨이	83	2.9
10	알제리	61	2.1

수출(PNG+LNG)

(단위: 백만톤)

순위	국가명	수출량	비중
1	러시아	177	19.1
2	미국	102	11.1
3	카타르	95	10.3
4	노르웨이	83	8.9
5	호주	79	8.5
6	캐나다	51	5.5
7	알제리	31	3.3
8	말련	24	2.6
9	투르크메니스탄	23	2.5
10	나이지리아	21	2.3

소비

(단위: 백만톤)

순위	국가명	소비량	비중
1	미국	618	21.8
2	러시아	305	10.8
3	EU	282	14.2
4	중국	245	8.6
5	이란	173	6.1
6	캐나다	84	2.9
7	사우디	83	2.9
8	일본	78	2.7
9	독일	64	2.3
10	멕시코	64	2.3

3. 석탄

● 생산

(단위: 백만톤)

순위	국가명	생산량	비중
1	중국	3902	50.4
2	인도	757	9.8
3	인니	553	7.3
4	미국	485	6.3
5	호주	477	6.2
6	러시아	400	5.2
7	남아공	248	3.2
8	카자흐스탄	113	1.5
9	독일	107	1.4
10	폴란드	101	1.3

수출

(단위: EJ)

순위	국가명	수출량	비중
1	호주	9.25	29.1
2	인니	8.51	26.8
3	러시아	5.66	17.8
4	콜롬비아	1.66	5.2
5	남아공	1.64	5.2
6	미국	1.62	5.1
7	캐나다	0.97	3.0
8	몽골	0.79	2.5
9	CIS	0.52	1.6
10	중국	0.18	0.6

소비

(단위: EJ)

순위	국가명	소비량	비중
1	중국	82.27	54.3
2	인도	17.54	11.6
3	미국	9.2	6.1
4	일본	4.57	3.0
5	남아공	3.48	2.3
6	러시아	3.27	2.2
7	인니	3.26	2.2
8	한국	3.03	2.0
9	베트남	2.10	1.4
10	독일	1.84	1.2

* EJ (Exa Joule, 1EJ = 10^{18}Joule) : 에너지 소비 단위로 1EJ는 석유 1억 7천만 배럴이 내는 에너지와 비슷

정리 종합전략실 출처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21.7월)를 종합하여 자체 정리

GVC 기초 상식 : 글로벌가치사슬(GVC)과 부가가치(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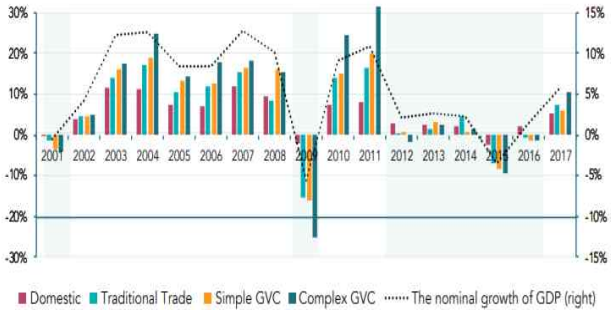
수출액/수입액 중심의 기존 무역 통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부가가치 기준 무역'에 대해 알아보자.
→ 특히, 중국은 자국의 무역 흑자가 부가가치 기준에 따르면 과다 계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부가가치(VA: Value Added)

- 일정 기간 동안에 경제활동주체가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이 창출한 가치
-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소비)을 차감하여 계산
- 국민소득계정에서는 부가가치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국내총생산으로 기록함

(출처: 한국은행 2020 경제금융용어 700선)

〈2000-2017년 글로벌 부가가치활동 명목 성장률〉



(출처: WTO)

● 부가가치기준 무역(TiVA: Trade in Value Add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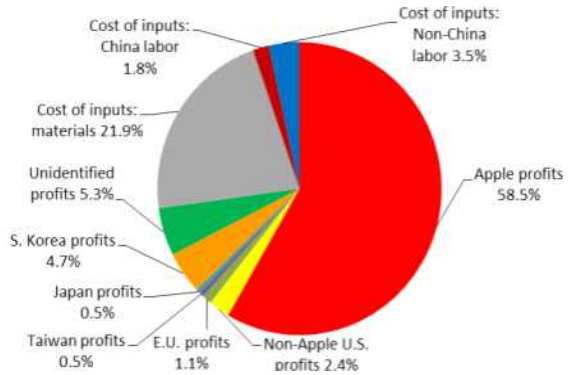
- 특정국가의 최종수요를 위하여 국가 간 생산 및 수출입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크기
- 국가 간 총액 기준으로 측정되는 기존의 수출입액과 달리 상대국 최종수요로 인해 자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이입액과 자국의 최종수요로 인해 상대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이출액으로 정의
-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교역 총액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중간재 거래가 중복 계상되는 기존 무역통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를 개발

(출처: 한국은행 2020 경제금융용어 700선)

● GVC에서 부가가치의 예시 : 애플 사의 아이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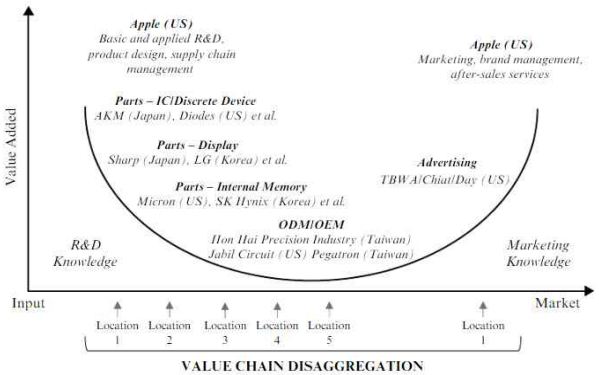
- 애플 사의 아이폰 4는 중국에서 조립되어, 'Made in China'로 최종 수출됨. 그러나 $194.04에 수출된 중국산 아이폰 완제품의 가치 중 중국이 생산한 부가가치는 $6.54에 불과
- 반면 아이폰 핵심 부품인 디스플레이 패널과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한국은 $80.05의 부가가치를 창출 (출처: "Economic Upgrading in Global Value Chains")
- 부가가치기준 무역은 중간재 생산과 거래가 활발한 수직 분업 GVC에서 각국이 실제로 기여한 부가가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애플社의 아이폰 4 생산에서의 부가가치 분배〉



(출처: "Capturing Value in Global Networks: Apple's iPad and iPhone")

〈애플社의 스마일 커브〉



(출처: "Economic Upgrading in Global Value Chains")

작성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GVC 돋보기 ① : 미국 공급망 행정명령 1주년 보고서

● 보고서의 배경

- 美 정부는 미국 공급망 행정명령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평가하고, 6개 주요 산업 분야의 공급망 분석 내용을 담은 보고서 〈*Executive Order on America's Supply Chains: A Year of Action and Progress*〉를 발간함 ('22.2월)

  * 팬데믹 이후 투자 부족, 아웃소싱 및 오프쇼어링 등 미국의 누적된 공급망 약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자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출범 한 달 만에 행정명령 14107에 서명하고 미국의 산업 공급망 재점검을 지시 ('21. 2. 24)

● 6개 주요 부문에서의 지난 1년간의 성과

- 美 정부는 ① 물류 운송 ② 음식 및 농산품 ③ 반도체 ④ 의료 ⑤ 주요 광물 ⑥ 대용량 배터리 등 6개 부문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공급망 불안을 잠재우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

부문	성과
물류·운송	▪ LA 및 롱비치 항구의 연중무휴 운영으로 물류 적체 해소 기여 ▪ 임시 컨테이너 야드를 만들어 사바나 항의 물류 적체 해소 기여 ▪ ① 트럭 기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② 트럭 면허 발급 확대를 통해 트럭 기사 부족 해결
음식 및 농산품	▪ 음식 공급망 관련 융자 프로그램에 1억 달러 투자 ▪ 육류와 가금류 공급망의 경쟁성, 공정성, 안정성 강화를 위해 9억 달러 투자 ▪ 미국산 옥수수, 소맥, 돼지고기에 대한 베트남의 수입 관세 인하 달성
반도체	▪ 반도체 생산망 교란에 대처하기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 미국 내 제조라인(Fab) 건설 및 확장을 위해 민간 부문과 공동으로 800억 달러 투자 ▪ 반도체 지원 법안 마련 및 반도체 생산 장려를 위한 상·하원의 자금 지원 합의
의료 공급망	▪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접종 지원 ▪ 개인보호장비(PPE) 및 진단키트의 미국 내 생산·배포 확대 ▪ 감염병 발생에 대비, 의료기기 사전 제조를 위한 시설 구축
주요 광물	▪ 희토류의 분류·정제 시스템 구축에 1억 달러 이상 투자 ▪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공급이 불안정한 광물을 연방 핵심 광물 리스트로 선정하여 업데이트 ▪ 채굴 관련 법안 및 규정 개정
대용량 배터리	▪ 배터리 원자재 및 소재 가공 프로그램에 30억 달러 투자 ▪ 전기차 충전 기반설비에 75억 달러 투자

● 향후 주요 산업 공급망의 발전 방향

- 美 정부는 ① 에너지 산업 ② 운송 산업 ③ 농산품-식품 산업 ④ 공중보건 산업 ⑤ ICT ⑥ 국가안보 등 6개 분야에서 공급망 강화에 필요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
  - 미국내 자체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유지하며, 교육을 통한 고급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
  - 또한 미국의 자체 노력 뿐 아니라 동맹국과의 국제 협업을 통해 다양성과 안정성이 공존하는 GVC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

작성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GVC 돋보기 ② : 리쇼어링(Reshoring) 동향 및 시사점

※ 공급망 관련 각국의 대책으로 리쇼어링(Reshoring)이 주목 받고 있음. 여기에서는 리쇼어링의 정의, 원인, 우리나라의 추진 현황 그리고 시사점 등을 살펴보고자 함

- **리쇼어링(Reshoring) :**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되는 의미로,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회귀하는 현상 **(한국에서는 '유턴'(U-Turn)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함)**

- **리쇼어링(Reshoring)을 하는 이유 :** ①자국민의 일자리 확보, ②해외 생산 의존도가 높은 리스크 감축, ③오프쇼어링의 필요*가 없어짐, ④오프쇼어링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 가능

  * 중국의 인건비가 대폭 올라 인건비 격차가 크게 줄어듦, ** 품질 저하, 기술 해외 유출, 긴 운송 시간

※ 美中 갈등 과정에서 G2는 자국 중심의 독자적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하고 있으며, 리쇼어링은 이러한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

- **미국·일본의 리쇼어링 현황**

  (미국) 미국 정부는 고위기술산업군의 리쇼어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금 감면(관세감면 및 세금 공제 혜택, 법인세 인하) 및 공장 이전비 지원 등을 통한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공

  - 스마트공장과 같은 첨단제조업의 상용화가 리쇼어링의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미국은 첨단기술, 고급인력, 내수시장이라는 투자 매력을 보유하고 있음

  (일본) 포괄적으로 리쇼어링을 정의하고(해외공장을 신·증설하고 자국에 신·증설하는 경우 포함), 설비집약형과 연구개발집적형 산업에서 리쇼어링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혁신 기술에 투자한 기업을 지원(법인세 인하)

  - 중앙정부는 규제완화, 경제특구, 세율인하 등 간접적인 지원을, 지자체는 전담부서 설치, 공장부지, 설비, 인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담당

  - 코로나19 이후 GVC 단절 위협 대처를 위해 보조금을 적극 지원(주요 대상 : 제조업, 소재부품, 방역용품, 원자재 등, 대기업은 공장 이전 비용의 1/2, 중소기업은 2/3 지원 추진), 일-아세안 공급망 구축 강화를 위해 아세안 국가로 생산설비 신·증설시에도 동일 규모 지원

- **우리나라의 리쇼어링 현황 :** '21년 **26개**社 복귀 → 단일연도 기준 **최대 실적**('14년 이후 누적 108개社)

  - **유턴법* 개정**('21.6.23. 시행) : **첨단**이거나 **공급망 핵심품목**의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면제**, **유턴 지원대상 업종**에 **방역·면역** 관련 산업 추가, **외투기업**에 대해서도 **유턴기업 선정·지원** 등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에 대한 조세감면, 입지 및 설비투자에 대한 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인력 지원, 입지 지원

  - **LG화학(플라스틱 바이오, PBAT)** : 유턴법 개정(첨단기술 기업에 대해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면제)이 적용된 첫 사례, **첨단산업에 대한 국내투자 확대**라는 관점에서 큰 의미

※ 참고 :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02-3460-7361~4, Ⓔreshoring@korea.or.kr, Ⓗwww.investkorea.org)

- **시사점 :** 미-중 양국이 상대국을 배제하고 자신들이 중심이 되는 공급망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바, 첨단기술과 제조업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우리나라도 **안정적인 실물경제 공급망을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국 외에 추가적인 생산지역을 확보하려는 기업(소위, China+1 전략)에게 한국을 투자지로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할 것임

  - 미국·EU·일본 등의 국가들이 본국으로의 리쇼어링이 어려운 경우, 인접 국가로부터 아웃소싱하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 동맹국으로부터 물품을 조달받는 **얼라이쇼어링(ally-shoring)** 등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

정리 종합전략실 출처 산업연구원「리쇼어링 추진전략과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GVC 전문가 : 김양희(외교안보연구소) - '신뢰가치사슬(TVC)'

※ 글로벌 가치사슬(GVC)이라는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용어 외에도 최근에는 **RVC(역내가치사슬), DVC(국내가치사슬), TVC(신뢰가치사슬)** 등의 연관 용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음. 최근에 발표된 '21세기 보호주의의 변용. '진영화'와 '신뢰가치사슬'('22.1.7, 김양희, 외교안보연구소)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가치사슬들에 대한 전망과 **미국 주도의 신뢰가치사슬(TVC)**에 대하여 더 알아보도록 하자

● 주요 내용

1. 보호주의의 21세기에서의 변용 - '보호주의의 진영화'

○ 전통적인 보호주의의 핵심적인 세 요소 : '상품', '수입', '관세' → 교집합은 '상품수입관세'

○ 21세기 보호주의 : '해외 경제주체 대상의 모든 종류의 차별적인 정부개입'으로 진화

→ 보호주의의 진영화(Blocization of Protectionism) : **미국이 동맹과 우방을 규합한 반중 공동전선** 구사 (바이든의 취임은 미국과 그 우방이 진영 하에 규합하는 변곡점이 됨)

2.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 - '신뢰가치사슬(TVC : Trusted Value Chain) 구축'

○ 상호의존성이 고도화된 오늘날, 초민감 전략물자를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도 단독으로 신흥.기반 이중용도 기술의 DVC(국내가치사슬) 형성이 불가능하며, 이는 오히려 회복력 측면에서 위험성 내재

○ 미국은 서방의 안보와 가치를 위협하는 첨단 이중용도 기술 분야에 국한해 기존의 GVC에서 중국만 도려내고 아직 기술 우위에 있는 우방과 새롭게 TVC 구축을 모색 중 (가치공유, 유사국, 신뢰 강조)

○ 미국의 TVC 외연 확대
- 구축 범위 : R&D + 제조 + 물류 등 全 공정으로 확대
- 對中 봉쇄 주체 : 점(미국) → 선(주요국과 양자 협력) → 면(다자 협력)으로 확대

3. 함의, 전망 및 대응방향

○ (함의) **코로나 이후 부각된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 : 한국이 미국 핵심 4대 품목 중 3개 품목의 생산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던 배경도 **반도체 등의 '생산 역량'**

○ (전망) 미국은 금년 중 최종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인 **10대 핵심품목에서 선별적으로 TVC 구축 시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단기간 내에 TVC가 착근될 가능성은 낮아 보임**

→ **미-중 전략경쟁의 승자가 어느정도 판가름날 때까지** 가치사슬이 작동원리, 행위자, 협력대상, 품목별로 **GVC, RVC, DVC, TVC가 병존**할 것으로 전망

가치사슬	작동원리	행위자	협력대상	주요 대상 품목
GVC	효율	기업	세계(Global)	범용 기술 및 품목 (예 : 섬유, 의류, 가구 등)
RVC			역내(Regional)	
DVC	↕	↕	국내(Domestic)	식량, 에너지, 무기/방산 (예 : 쌀, 원자력, 미사일)
TVC	회복력	국가	우방(Trusted)	이중용도 기술 및 품목 (예 : AI, 반도체, 양자)

○ (대응방향) ①**TVC 내 차별화된 역할 정립** : 첨단 제조 역량을 전략자산으로 강화 + 부처 간 협업 체제
②**원칙 & 일관된 국제협력** : 기술별 품목별 GVC,RVC,DVC,TVC 분산 배치 + 협력 파트너
③**미-중이 소프트파워 제고를 위한 선의의 경쟁**에 나서도록 설득 + 유사국과 공조

● 평가 및 의견 (종합전략실)

○ 자급자족(DVC) 불가, 미-중 경쟁 시대 → 기술·품목별로 다양한 가치사슬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리 종합전략실 출처 외교안보연구소

GVC 소식통 ①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기업 지원 문의처 안내

분야	지원기관	지원내용	비고
①수출통제	**전략물자관리원(www.kosti.or.kr)** · 러시아데스크 02-6000-6498 / 6499 · 수출통제 제도문의 02-6000-6384 / 6440 · 통제품목 문의 02-6000-6381 ~3	對러 수출통제 상세 내용 및 對러 **통제품목 사양 정보** 등 안내	
	* 전체 전략물자 리스트 확인 방법 ① (한국) 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관리시스템(클릭) 확인 ② (미국) 전략물자관리원 TRADE ALERT(클릭) 확인 * 제재 관련 최신 정보 : KITA ALERT(클릭), 수출입물류포탈(클릭) 및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기획성 속보(클릭)를 통해 확인 가능		
②금융제재	**금융감독원(www.fcsc.kr)** ·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02-3145-1332→6번	현지 주재원 및 유학생 등의 대러 금융제재로 인한 **금융애로** **접수·해소 지원**	
	한국산업은행 · 영업점 또는 상담센터(02-787-5611)	**긴급 금융지원** 상담 및 금융지원프로그램 안내 ※ 신용보증기금(053-430-4345)	· 특별운영자금 : 0.2 조원 · 중소·중견 자원자금 : 0.6 조원
	수출입은행 · 영업점 등(02-6252-3416)		· 0.5 조원 규모 지원
	기업은행 · 영업점 등(02-729-7494)		· 0.7 조원 규모 지원
③무역투자	**KOTRA(www.kotra.or.kr)** · 무역투자24 전담창구 1600-7119(2→4)	**"무역투자24" 온·오프 전담창구** 운영 진출기업 동향 점검, 비상연락망 가동	
	무역협회(www.kita.net) · 긴급애로대책반 02-1566-5114	수출입기업 대상 **긴급 애로접수 창구 운영**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 · 02-399-7204/7034/6951 · 1588-3884	**무역보험 지원**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연장,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신속 지급 등	
④공급망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 1670-7072	소부장 수급애로·간접피해 등 기업 애로 접수 및 대응 지원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 044-203-3861~2	품목별 국내외 공급망 정보 제공	산업부 무역협회·코트라 등 협업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 02-6000-5754	수출입물류 애로 접수 및 대응지원 우크라이나 사태 긴급물류 지원 (KOTRA 유망기업팀 2-3460-7428)	산업부·해수부·중기부 무협·물류협·해협·HMM 등
⑤물류	**KOTRA(www.kotra.or.kr)** · 유망기업팀 02-3460-7445/7426/7428	**긴급물류 지원 사업** 타 지역 긴급 운송 또는 대체 바이어 찾는 과정 중 현지 임시 보관 및 내륙운송 서비스 지원	KOTRA 물류네트워크를 통한 현지 창고보관 및 입출고, 포장, 통관, 반품, 내륙운송 서비스 지원
⑥법률자문	**KOTRA(www.kotra.or.kr)** · 해외진출상담센터 1600-7119(연결번호2-4)	**비즈니스 애로 러시아 변호사 자문 상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비즈니스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 대상	러시아 변호사의 수출제재 상세내용, 러시아 기업 조회, 계약서 검토 등 지원

정리 종합전략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제2호) 등 종합 정리

GVC 소식통 ② : 중국의 코로나 봉쇄에 따른 기업 공급망 애로 접수 창구 운영

※ 지난주(3.10)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제2호)에서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변화 가능성 검토'라는 분석 내용을 게재한 바 있음. 중국은 한국(기업)의 공급망 관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로서 코로나 확산시 도시 봉쇄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에 따라 **중국과 공급망이 연계되어 있는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아래에서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시 봉쇄 등)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과 문제 발생 시 **문의·상담 창구**에 대하여 안내드림

●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변화 가능성 검토 (지난호 요약)

◈ **종합 평가 : 금년 연말까지 현재의 제로 코로나 정책 유지할 것으로 전망**

① **20차 당대회**(10~11월, 시진핑 주석 3연임 결정)**의 성공 개최가 현재 중국 공산당에게 가장 중요**

② **중국 백신의 문제점**(효력.품질 등)은 정책 변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

③ 중국 정부는 **현실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 변화가 어려운 가운데, 최근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금리인하, 인프라투자 등)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음

※ 안정적으로 당대회를 완료한 이후, **코로나 변이의 감염력, 치사율, 부스터샷 접종률 등을 종합 감안**하여, **금년 연말 또는 내년초 제로 코로나 정책 변화 가능성** 있음

* 오미크론보다 치사율이 낮은 새로운 변이의 주력화, 백신 부스터샷의 효능 및 접종률 등이 주요 변수

☞ **(대응)**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핵심 원자재·소재·부품에 대한 DB**(해당기업, 소재지, 물량, 비중, 한국내 재고량, 대체공급선 등)**를 구축**하여, 만일의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해 나갈 필요

● 중국과 공급망이 연계되어 있는 우리기업의 유의사항

◈ **중국내 제로 코로나 정책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고확대, 공급망 다면화 등 대응 필요**

① **국내에 보유 중인 해당 제품의 재고 확대**

② 중국 외의 **국내 또는 타국가(혹은 중국내 타지역)에 제2, 제3의 공급망 확보**

③ 중국내 공급망 비상상황(봉쇄 등)에 대비하여 **모의훈련 실시 → 대응방안 모색**

☞ 재고 확대, 공급망 다변화 등은 기업으로서는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쉽게 실행하기 어려운 과제임. 그러나, **문제 발생시의 피해액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비용-편익 분석**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 실제 2020년 코로나 발생 초기 중국내 생산 부품 조달로 어려움을 겪었던 A社의 경우에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 20%의 물량만 제3국으로 공급망을 변경했다는 것을 보아도 공급망 다변화는 어려운 과제임

● 중국 공급망 관련 문제 발생시 정부(유관기관) 연락처 (애로접수 및 지원방안 협의)

	담당기관	연락처
국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 1670-7072 (대표전화)
중국현지	주중한국대사관(상무관) 및 총영사관(상무관)	☎ 010-8531-0849 (대사관 상무관실)
	KOTRA 중국내 무역관(베이징 등 20곳)	☎ 010-6410-6162 (본부, 대표전화)
	한국무역협회 중국내 지부(베이징·상하이·청두)	☎ 010-6505-2671~3 (베이징지부)
	중국한국상회 및 지역한국인(상)회	☎ 010-8453-9756~8 (중국한국상회)

※ 실물경제 공급망 관련 산업부-재외공관(상무관)-KOTRA(무역관)-무역협회-한국상회 등이 유기적 협업 시스템 운영 중

작성 종합전략실

GVC 소식통 ③ : (행사안내) WTO 공급망 포럼, 배터리 공급망 세미나·상담회

● WTO 글로벌 공급망 포럼(Global Supply Chains Forum) 개최

- 글로벌 공급망 문제의 원인과 영향 심층분석, 공급망의 회복탄력성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포럼 개최
  - (일시) 3월 22일(화), 00:15~02:15 (한국시각) / 현지시각(취리히) 기준 3.21(월) 16:15
  - (참가방법) ZOOM을 통한 온라인 웨비나 (무료, 영어로 진행)
  - (참가신청) WTO 홈페이지 內 참가 링크를 통해 접수
    * 참가 신청, 세부 프로그램 및 참여 연사 안내링크
      : https://www.wto.org/english/news_e/events_e/gscforum2022_e.htm
  - (프로그램)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의 원인과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공급망 교란이 영향을 미치는 기업/산업과 국가 분석, 글로벌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 방안 제시 및 WTO의 역할 등
  - (문의처) GlobalSupplyChainsForum@wto.org

● 인터배터리 2022 해외시장 동향 세미나

- 차세대 유망 산업인 배터리(이차전지) 분야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추진 지원을 위하여 해외 주요 시장 동향 세미나를 개최,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림

웨비나 신청 QR

  - (일시) 2022년 3월 18일(금) 13:00~18:00 (한국시각)
  - (참가방법) EVENTUS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중계 (무료)
    * 참가신청 https://event-us.kr/42459 [신청기한 3.17(목) 限]
  - (프로그램) 1부 : 글로벌 배터리 시장 동향 (BloombergNEF, IHS Markit),
    2부 : 국내 배터리 기업의 선진시장 진입 전략 (미국, 유럽, 일본, 중국)
    3부 : 주요 시장별 배터리 시장현황 및 협력방안 (고성능 배터리셀, 인도, 태국, 인니, 브라질)
    4부 : 국내 중소기업의 M&A 활용 방안 (KOTRA) I
  - (문의처) KOTRA 소재부품장비팀 ☎ 02-3460-7636 / bgw1324@kotra.or.kr

● 이차전지(배터리) 원자재 공급선 상담회

- 이차전지 원자재(리튬, 니켈, 흑연 등 양극재 및 음극재) 해외 공급선과 조달을 희망하는 우리기업 간 상담을 지원, 관심 기업의 많은 참석 부탁드림
  - (사업기간) 2022년 3월 17일(목) ~ 31일(목) [사업기간 중 상시 신청 가능]
  - (사업규모) 양극재(리튬, 코발트, 니켈 등) 및 음극재(흑연) 공급 해외기업 20개사 참가
  - (문의처) KOTRA 공급망모니터링팀 ☎ 02-3460-7766 / fhfhfh5533@kotra.or.kr
    * 전화/메일로 참가문의를 주시면, 사업 참가 해외 공급선 정보와 참가신청서를 송부 드립니다

작성 산업분석실(한국무역협회), 공급망 모니터링실(KOTRA)

더 찾아보기 : '석유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저자 : 최지웅) 책 소개

※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가 고공행진을 비롯하여, 지난 2년간 원유가격은 '석유코인'이라 불러도 어색함이 없을 정도로 큰 변화를 겪어 왔다. **지난 수년간 국제사회의 관심이 친환경 에너지에 쏠려 있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석유로 가득 채워진 발판 위에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책에 주목하는 이유다.

● 석유의 세계사

저자에 따르면 20세기 현대사는 세계 질서를 결정지을 수 있는 두 가지의 무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왔다. 그것은 '석유'와 '핵무기'이다. **저자는 특히 석유를 통하여 일견 복잡다단한 20세기 현대사를 관통하는 통찰력**을 보여 준다. **세계 유일의 패권국인 미국의 이야기**, 특히 미국이 어떻게 석유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중동 산유국 및 우방국을 통제하고자 하였으며, 저항하는 세력을 무력화 하였는지, 혹은 그 과정에 어떤 실수를 범하였는지 — 무엇보다 '석유적' 동기에 의하여 어떻게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정치, 외교, 군사, 산업,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 왔는지를 풀어내고자 하였다.

'석유의 세계사'라고 부르기에 적절한 이 책의 이야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19세기 패권국인 영국이 1차 대전을 지나며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였다가 2차 대전을 지나면서 다시 미국의 석유 지배력이 공고화되는 1969년까지이다. 그리고 중동 산유국으로 구성된 OPEC이 출범하여 전 세계 석유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쥐고 오일쇼크가 발생하는 1970년대를 설명한다. 이어서, 뉴욕상품거래소에서 WTI 원유선물 거래가 시작됨에 따라 석유가 금융상품이 되면서 다시 미국에 의해 장악되고 다극화된 산유국간 경쟁의 결과 유가 폭락을 경험하게 되는 1980년대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소련 해체, 걸프전, 9.11 테러, 이라크전쟁을 지나 세계금융위기와 셰일혁명을 거쳐 지금에 이르는 1990년대와 21세기 초입까지 숨가쁘게 달려간다.

● 미국과 석유

이 이야기들은 무엇보다 **미국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우선**된다. 저자가 집요하게 탐구하는 질문은 이것이다. "왜 미국은 그토록 중동에 집착하는가?" 수많은 저항과 때로는 폭력을 동반한 테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동과 아랍에 막대한 인명과 자금을 투입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여를 하는 이유는 결국 그곳에 매장된 석유 때문이다. 만약 석유가 중동에 없다면, 혹은 중동에서 나오는 석유가 필요 없다면 세계 역사는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2008년 금융위기 수습을 위해 미국 연준(FED)이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추진함에 따라 풍부해진 유동성은 일부 석유회사들에 의하여 셰일오일 개발에 투자되었다. 셰일오일은 시추 기술개발 후 긴 공백기를 거쳐 2010년을 전후하여 드디어 개발이 본격화되었는데, 이는 때마침 유가 상승과 맞물려 불과 3~4년만에 셰일혁명이라 부를만한 붐으로 이어졌다. 미국이 사우디와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1위 산유국에 등극한 것이다.

보다 중요하게도 **셰일오일은 유럽, 중동,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장기적으로 새로운 방향을 향하는 변곡점**이 되었다. 전세계를 하나의 통합된 시장으로 만들려는 미국의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는 동안 중동 미군 철수, WTO에 대한 견제, 미-중 무역전쟁 등에서 보여지듯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로 변모**하고 있다. 그리고, 저자에 따르면 이는 **셰일오일을 토대로 더 이상 중동산 석유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미국의 자신감**에도 연결되어 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과감하게 단행한 것에도 미국의 원유 수입에서 러시아산 비중이 3%에 불과하다는 데서 오는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 여전히 중요한 석유 그리고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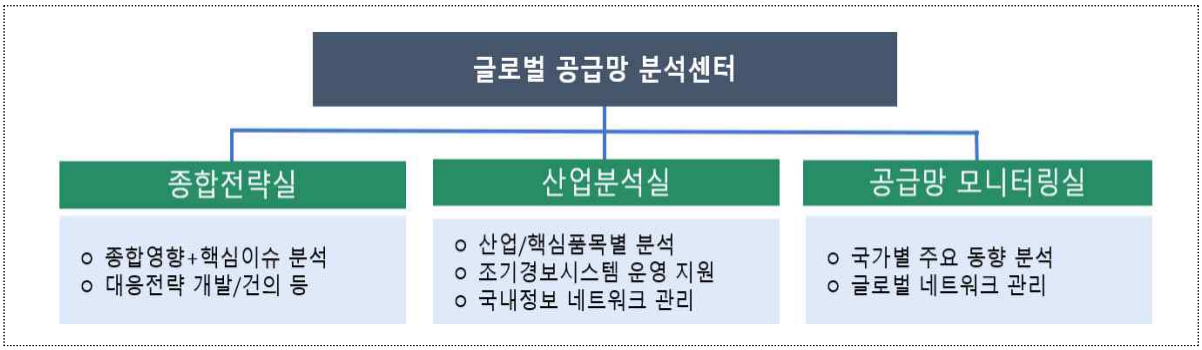
물론 **장기적으로 세계경제 질서는 친환경 에너지 구조에 기반하여 형성되어 갈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당장에 진행중인 우크라이나 침공사태가 아니더라도 이미 작년부터 연준의 무제한 통화공급에 더하여 공급망 교란에 따른 원자재 공급부족, 코로나 이후 수요 회복까지 맞물려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이 장기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는 이 때에 유가 상승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는 **미국의 세계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예측할 때 여전히 석유라는 변수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다.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구교영

【참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소개 및 활용 방법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Korea Center for GVC) 출범**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KOTRA 등은 '22.2.9(수) 10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출범식 행사를 개최
  - 이 날 행사에는 산업부 문승욱 장관, 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KOTRA 유정열 사장과 반도체·자동차·철강·디스플레이 등 주요 업종별 협·단체 임원들이 참석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상시·전문적 분석 역량을 갖춘 국내 유일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서,
  - ①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을 심층 분석
  - ②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발견시 이를 신속히 전파하고 대응조치를 제언하는 등 국가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을 지원
  - ③ 또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할 계획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조직은 종합전략실, 산업분석실, 공급망 모니터링실 등 3개 실을 두고, 무역협회, 코트라 등 기관의 전문인력에 더하여, 업종별 협·단체의 파견 인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
  - 센터장은 무역협회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이 맡음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조직도 〉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활용 방법** **(종합 문의 : gvc_research@kita.or.kr)**
  - **(구독 문의)**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대외발간물) 매주 1회(목요일) 발간
    - 산업통상자원부(정책·정보-간행물), 한국무역협회(분석센터), 코트라(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뉴스레터 형태로 메일 송부 중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SNS로 쉽게 전파·확산이 가능한 형태로 발간물 작성 (PDF 파일)
  - **(품목 문의)** 공급망 분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문의 및 제안
    - 해당 품목의 중요성·파급력 등을 검토하여 공급망(GVC) 분석 대상으로 선정
    - 구체적인 HS 코드를 알고 있을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각종 무역통계 정보 제공
  - **(필자 참여)** 본인의 지식·경험을 활용하여 필자로 참여 가능 (단순 정보제공 형태로 참여도 가능)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의 세션에 따라 분량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
    - 제출한 글이 내부 심사를 거쳐 게재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예정

글로벌 경제지표(22. 3. 16. 수)

[환율]

	'20.12.31	'21.12.31	'22.2.28	'22.3.11	'22.3.14	'22.3.15	전일比	21말比
₩/U$	1,186.30	1,188.80	1,202.30	1,232.00	1,242.30	1,242.80	0.04	4.54
선물환(NDF,1월물)	1,186.30	1,190.00	1,203.20	1,232.30	1,242.00	1,243.70	0.14	4.51
₩/CNY	166.04	186.51	190.52	194.95	193.62	194.85	0.64	4.47
₩/Y100	1,051.19	1,032.48	1,040.86	1,056.02	1,054.76	1,050.55	△0.40	1.75
Y/U$	103.34	115.14	115.51	116.66	117.78	118.30	0.44	2.74
U$/EUR	1.2279	1.1318	1.1165	1.1005	1.0921	1.0979	0.53	△3.00
CNY/U$	6.5305	6.3681	6.3105	6.3212	6.3531	6.3775	0.38	0.15

* '21년 평균 환율: (₩/U$) 1144.6원, (₩/￥100) 1041.9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1년 최저(해당일)	'21.12.31	'22.3.14 (전일)	'22.3.15	전일(3.14比)	'21년최저比	'21년말比
원유(두바이)		50.05 (1.5일)	77.12	109.88	99.78	△9.2	99.4	29.4
철광석		87.27 (11.18일)	120.75	144.90	135.55	△6.5	55.3	12.3
비철금속	구리	7,755.50 (2.2일)	9,692.00	9,880.00	9,826.00	△0.5	26.7	1.4
	알루미늄	1,951.50 (1.19일)	2,806.00	3,399.00	3,217.50	△5.3	64.9	14.7
	니켈	15,907.00 (3.9일)	20,925.00	42,995.00	42,995.00	0.0	170.3	105.5

[반도체]

	'20	'21	'21.12	'22.1	'22.2	3.10	3.11	3.14	3월(~14)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07	3.42	3.42	3.73	3.88	3.90	3.90	3.89	3.92
(%, YoY)	△21.9	8.0	8.0	7.1	△0.6	-13.0	-13.0	-13.5	△10.5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5.71	7.45	7.45	7.54	7.65	7.9	7.9	7.9	7.9
(%, YoY)	7.0	32.8	32.8	33.7	33.1	33.1	33.1	33.0	32.7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2.18	'22.2.25	'22.3.4	'22.3.11	전주(3.4比)	'21년말比
운임지수	5046.66	4946.01	4818.47	4746.98	4625.06	△2.6	△8.4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2.28	'22.3.8	'22.3.9	'22.3.10	'22.3.11	전일(3.10比)	'21년말比
BDI	2217	2040	2352	2558	2704	2718	0.5	22.6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 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협력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무역협회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kosti 전략물자관리원 KOREA STRATEGIC TRADE INSTITUTE | KOMI 한국기계산업진흥회

KSIA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KDIA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 kama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한국철강협회 | KAR 한국로봇산업협회